

관리 일변도 '법인법' 개정되나

조계종, 개정위 구성... 11일 첫 회의 개최

제정 이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계종 법인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다.

조계종 총무원에 최근 법인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인법 개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실무TF팀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원으로는 교육원장 현을 스님과 종회의원 성직 스님(선학원대총장 위원장), 만담 스님(불교광장 정책위원장), 총무부장 정만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이 참여하며, TF팀은 총무국장 명보 스님, 기획국장 남전 스님, 이석식 총무차장으로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현행 법인법의 미비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취합된 의견들을 정리해 대체 입법안을 만들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승려와 사찰이 만든 법인

들을 중단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적지 않은 법인 관계자들은 "총무원장이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에 다른 법인이 명령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 시행 이후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법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8일 개원했던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의 결과에서도 법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임시회에서 총무원은 법인 등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종회는 3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율·통과시켰다. 이후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종책 질의를 통해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종회의원 장명 스님은 질의



조계종 총무원은 법인법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인 성격 등 재분류될 듯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 중 6월 임시 종회 상정 계획

를 통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승인해야 하는 것(제12조 정관 개정) △법인 임원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사회 처리를 강제하는 점(제20조 임원 해임)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제18조) 등은 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개정 법안에

는 그간 문제가 된 법인의 정의를 다시 정하고 이에 맞게 법인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제와 관리 일변도였던 법인법에서 지원책도 함께 삽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한 법인법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학원과 관련된 조항도 일부 보완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 해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남전 스님은 "조계종 종도와 소속 사찰의 삼보장제가 출연된 법인을 잘 관리해 정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와 기초는 유지하면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관리하는 법이 아닌 정진과 포교를 잘하는 법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남원 실상사 원지 전경. 북쪽으로는 정자로 추정되는 건물지 등이 발견됐다. 연구소측은 선종사찰 수행과 연관된 것이라 추정했다.

불교문화재연구원 발굴 성과 학계서 '주목'

실상사 苑池 확인... 삼국유사 속 '미탄사' 실제 찾아

불교계 유일 문화재 연구 기관인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발굴 성과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는 6월 11일 지난해 불교계 최초로 시발굴 조사에 들어갔던 경주 미탄사(味呑寺)지에서 '미탄(味呑)'이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주 미탄사는 <삼국유사>에 최치원의 옛집을 설명하며 딱 한번 언급되는 사찰로 황룡사지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찬문 발굴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명문기와는 미탄사 위치를 최초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최치원 고백인 독서당의 위치를 방증하는 자료"라며 "왕경 구성과정과 황룡사와 미탄사 등 주변사찰이 어떤 관계를 띠었는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발굴조사에서는 '미탄' 명기와 함께 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등 유구, 연꽃무늬·당초무



미탄사지 '미탄' 명문기와

- 남원 실상사지
- 선종 사찰 연못 첫 확인
- 추가조사·학술대회 예정
- 경주 미탄사지
- '미탄' 명문 와편 찾아내
- 왕경 구성과정 확인 의미

늬가 새겨진 와당류와 인화문(印花紋·도장무늬) 토기 등이 출토됐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남원 실상사(南原 實相寺) 텃밭스테인 시설인 양혜당과 보적당 건립부지

에서 독특한 모습의 고려 시대 사찰의 원지(苑池)를 확인했음을 밝혔다.

원지와 수로(水路) 시설은 그동안 국내 다른 사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원지가 고려 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선종사찰에서 정원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일본의 원지가 있는 사찰 100여 개중 50여개가 선종사찰로, 이번 실상사 원지는 선종사찰에서 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군위 인각사지 등에 연못이 있지만 이번 실상사 원지와 같이 입수로와 배수로까지 구축된 것은 최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만 스님은 "향후 추가조사와 함께 학술대회 등으로 관계 상황을 조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日 불교 "청소년에 꿈·희망 찾아주자"

6월 9~10일 큐슈 일원서 35차 불교우호교류대회 5개항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과 일본 양국 불교계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야시 쇼겐)는 6월 9~10일 일본 큐슈(九州) 후쿠오카현(福岡縣) 일원에서 제35차 한일불교교류 일본선도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이 대회에는 양국 회장 스님을 비롯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준광(천태종 총무원장)·향적(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스님과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법등정사(종지종 통리원장), 상임이사 월도 스님,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일한불교교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야야시 쇼겐 스님이 6월 9~10일 일본 큐슈 일원에서 열린 제35차 한일불교교류대회에서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협의회 이사장 니시오가 료코 스님, 노자와 류코 사무총장은 참석대중 불자 등 양국 불교지도자와 불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 대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큐슈 후쿠오카현(福岡縣) 쿠루미시(久留米市) 젠도지(善導寺) 본당에서 세계평화기원법요식과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 측 법등정사와 일본측

요성을 확인했다.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평화선언문에 앞서 세계평화기원법요식이 봉행된 법요식에서는 올바른 한일 불교 교류에 대한 다짐이 이어졌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사건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신 일한불교교류협의회에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치료를 위해 양국 종교계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정진해 가자"고 당부했다.

평화기원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학술세미나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측에선 한남경 동국대 문화윤리학과 교수, 일본측에선 히로사와 타카유키(廣澤隆之) 대정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호계위원 결국 '초심'만 참여

종헌특위, 11일 회의서... 25일 중앙종회 임시회서 발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6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을 6월 25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에서 재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제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초심호

계에만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토록 수정했다. 종헌종법특위가 이날 수정한 종헌개정안에 따르면 호계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위원과 9인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초심호계위원의 경우 비구니 호계위원 2인을 두도록 명시했다.

신성민 기자

사고
알립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의 우편 집
 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1
 일 이후 제작되는 신문부터
 발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독
 자 제언에게 알립니다. 되도
 록이면 빠르게 발송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탑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 불탑
 단독입점

품명		규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中)	41cm×21cm
		(小)	35cm×21cm
다기		다기	(大)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향통	원형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탑 TEL 02)2004-8216